

# 여주~원주 복선전철 개통 앞당긴다... 박정하 의원·국가철도공단 간담회

✎ 권혜민 | ☎ 승인 2023.05.22

김한영 이사장 "2024년 3월에서 올해 9월로 6개월 조기 착공"



▲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(원주갑) 국회의원은 22일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과 여주~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.

원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'여주~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'이 조기 착공된다.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개통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.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(원주갑) 국회의원은 22일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과 간담회를 갖고, 공단으로부터 "오는 2024년 3월로 예정된 여주~원주 복선전철 착공 계획을 6개월 앞당겨 2023년 9월 조기 착공하겠다"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.

또 이번 간담회에서 박정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“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”는 추가 건의에 나섰고, 김한영 이사장이 이에 화답, 해당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.

여주~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‘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’에 포함돼 2018년 단선사업으로 확정됐다가 2021년 복선전철로 변경되며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여 늦어졌다.

박정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,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소통해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, 지난해 7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조기 착공의 청신호를 켜다.

박정하 의원은 “지역의 관심과 성원에 조기 착공이라는 성과를 얻었다”며 “이제는 조기 건설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**권혜민** khm29@kado.net